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⑲ '뿌리 깊은 나무'(2011)

훈민정음, 백성을 자유롭게 하다

한글날을 앞두고 세종 대왕님을 한 번 모셔야겠다. 요즘에야 신사임당께 1위를 내주셨지만, 한때는 가장 고액지폐의 모델을 하실 만큼 세종 대왕은 한국을 대표하는 위인이다. 세종 대왕을 우리 역사 최고의 위인으로 꼽는 이유 중 하나는 한글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다른 업적도 많이 있지만, 현대의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한글은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사용되고 있으니 세종 대왕의 업적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셈이다.

세종 대왕이 직접 지으셨다는, '나랏말ᄊᆞ미 듕귁에 달아 문ᄌᆞ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씨(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끼리 서로 맞지 아니하다)'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을 외우고 있다면 자랑스러워도 해도 될 일이다. 10월의 한글날뿐만 아니라 5월의 스승의 날까지 세종 대왕의 생신에 맞출 만큼 우리가 세종 대왕을 생각하는 마음은 극진하다.

이런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를 다룬 드라마가 바로 SBS의 '뿌리 깊은 나무'이다. 드라마는 왕궁 호위 무관 강채윤(배우 장혁)이 집현전 학사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형식을 빌려 훈민정음 반포 직전 7일 동안의 일을 다루고 있다. 살해된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 대왕(배우 한석규)이 주도해 비밀리에 조선의 글자를 만들고 있던 천지계의 계원들이었다. 드라마 속 가상의 조직인 천지계에는 이들 외에도 말을 하지 못하는 소이(배우 신세경)를 비롯한 몇몇 궁녀와 정인지, 성삼문, 박팽년 등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유학자들, 그리고 세종 대왕의 아들인 광평 대군까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세종 대왕의 움직임에 맞선 또 하나의 가상의 비밀 조직 밀본(密本). 이들은 조선의 숨겨진[密] 뿌리[本]는 재상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왕권(王權)과 대립하는 신권(臣權)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세력을 상징한다.

드라마 제목 '뿌리 깊은 나무'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2장의 첫 구절 '불휘 기픈 남ᄀᆞᆫ'에서 따왔다.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이 글자가 실제로 우리 말을 잘 표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훈민정음 반포 전 만들어진 최초의 한글 가사이다. 용이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조선 왕조의 기틀이 되는 인물들을 노래하면서 조선 왕조를 찬탄하는 노래로 이 가사에 맞춰 만들어진 궁중무용과 음악이 바로 '봉래의(鳳來儀)'다.



사진 출처=SBS 공식 홈페이지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를 다룬 드라마
불교 영향 분명, 일부선 스님 창제 주장
훈민정음의 실질적 주인 백성임을 선언

왕이 깊이 관여해서 만든 글자이니 훈민정음으로 왕조를 찬탄하는 노래를 처음 짓는 일이 일견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용비어천가〉 다음에 지은 글이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다. 〈석보상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족보를 자세히 해야 할 곳은 자세하게, 간략히 넘어갈 곳은 간략하게 설명한다는 뜻이다. 또 〈월인천강지곡〉은 하늘의 달빛이 천 개의 강에 비친다는, 유명한 불교 비유를 제목으로 하고 있다. 〈용비어천가〉를 제외하면 훈민정음으로 만든 최초의 글이 모두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다. 조선의 정책은 숭유억불이라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드라마에서 살해당한 집현전 학사의 집을 찾아간 채윤은 그 학사가 〈대비바사론〉이라는 범어로 된 불교 경전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해 듣는다. 〈대비바사론〉은 경전이 아니고 논서인데다 이미 한역이 돼 있는 것이므로 범어로 돼 있다는 말은 잘못됐지만, 드라마에서도 불교 문헌을 언급할 만큼 훈민정음 창제에 불교의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의 주체가 집현전 학자가 아니라 스님이라고까지 주장한다.

'나랏말ᄊᆞ미'로 시작해서 '뼌한킈 ᄒᆞ고져 ᄒᆞᆯᄲᅳ르미니라(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로 끝나는 훈민정음 서문이 108자이고, 당시 유학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굳이 한문으로 번역해 '국지어음(國之語音)'으로 시작해서 '편어일용의(便於日用矣)'로 끝나는 훈민정음 한문본 서문이 그 절반인 54자라는 사실도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세상에 반포한 해가 1446년이고 조선이 세워진 해가 1392년이니 겨우 50년 남짓한 세월만에 새로운 글자가 등장했다. 고려를 망하게 한 원인이 불교라며 조선이 불교를 제한하려고 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화는 여전히 불교였을 것이다. 50년이란 짧은 시간에 정신적인 면까지 바꾸기는 쉽지 않다. 또한 불교를 품고 사는 이들이 바로 한글을 실제로 사용할 '어린 ᄇᆡᆨ셩(어리석은 백성)'이니 그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석보상절〉이고 〈월인천강지곡〉이었다. 세종 대왕님의 마음 씀씀이가 이런 데까지 미친다.

이처럼 훈민정음이 백성을 위한 글자임을 드라마는 끊임없이 강조한다. 일상의 욕이나 온갖 의성어까지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면서도 고작 28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나절만 배워도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임을 여러 장면을 통해 보여 준다. 특히 드라마에서 훈민정음 창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소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 환자였다가 반포 무렵이 되어 말을 함으로써, 글자가 없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던 백성이 비로소 자유로운 세상을 맞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소이가 바로 훈민정음을 해설하는 '해례(解例)'라고 설정함으로써 훈민정음의 실질적인 주인이 바로 백성임을 선언한다.

600여 년 전 한자를 몰라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 세종 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고 이렇게 새로 만든 글자로 불교 문헌의 언해본을 편찬했다. 세종 대왕 이후로도 국가기관인 간경도감(刊經都監)을 통해 다양한 경전이 우리말로 번역됐다. 그리고 이런 전통을 이어 1963년부터 2001년까지 무려 40여 년에 걸친 역경 사업 끝에 '한글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해인사 판전에 보관된 고려대장경 전체를 우리말로 번역했다. 21세기에서야 비로소 불교 경전의 언해본이 완성된 셈이다.

불교는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유행이 된 요즘, 불교도 함께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그렇게 불교가 퍼져나가는 데 우리의 한글대장경이 한몫을 했으면 싶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깨달음 위한 희생과 수행자 박해의 업보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㊲ 십악륜 (4)의 주요 내용

〈지장십륜경〉 제4권의 무의행품 제3장, 제2의 연속선상에서, 이번 호에서는 '십악륜' 중 ④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로 '육아상왕인연'이 삽입돼 있습니다.

④"선남자야, 파계악행의 비구가 이같이 법을 벗어난 중죄를 지었더라도, 나의 법에 의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행동의 위의가 성현들과 같으면, 국왕, 대신, 속인들이 세속의 바른 법에 의해 곤장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사지를 찢거나, 목숨을 끊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물며 비법에 의함이겠느냐?

국왕, 대신, 속인 등이 만일 이렇게 한다면 큰 죄를 얻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계율을 깨뜨린 악행비구에게도 그렇게 나무라거나 벌을 주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계율을 잘 지켜 진실하고 선한 행자에게야 어떻겠느냐?

선남자야, 어떤 비구가 여러 무거운 성죄 가운데 한 가지를 범하기만 해도, 그를 계율을 깨뜨린 악행비구라 하지만, 화합한 스님네 속에서 얻은 율의는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그가 배운 계율을 버렸더라도 깨끗한 법의 향기가 그를 따르고 있으므로, 율의가 없는 저 국왕 대신이나 속인들은 그를 경멸하거나 꾸짖거나 벌을 주지 못한다.

이런 비구는 비록 법의 그릇이 아니요, 거룩한 법을 잊어 청정한 대중을 더럽히며, 사문의 법다운 일을 파괴하기에 모든 스님에게 주는 물건까지도 받아 쓰지 못한다고 하지만, (내가) 친히 가르친 화합한 스님네 속에서 얻은 율의를 버리지 않았기에, 일체의 속인들보다 나으니라. 성죄를 지은 자여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그 외의 사소한 차죄를 지은 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국왕, 대신, 속인들이 그를 경멸하거나 꾸짖거나 벌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육아상왕인연(六牙象王因緣)

"선남자야, 옛 가사국(인도 베나라스의 카시국)에 범수(梵授)라는 왕이 하루는 백정에게 명령했다. '설산 변두리에 '청련목'이라는 큰 코끼리 왕이 있는데, 그는 여섯 개의 어금니를 지니고 있다. 너희는 가서 그 이빨을 뽑아 오너라. 만일 가져오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목숨을 건지려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붉은 가사를 입고, 거짓으로 사문의 형상을 하고서 코끼리가 사는 설산의 주변에 이르렀다. 그때 한 어미 코끼리가 멀리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 코끼리 왕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대천(大天) 님, 어떤 사람들이 화살을 들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죽는 것이 아닙니까?' 코끼리 왕은 이 말을 듣고 바라보니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다. 왕은 어미 코끼리에게 말했다. '저들은 항하의 모래 수같이, 수많은 부처님 법의 당(幢) 모양을 차렸나니, 모든 악을 떠나 반드시 중생을 해치지 않으리.' 어미 코끼리는 게송으로 답했다. '저들이 비록 법복을 입은 줄은 알지만, 활과 화살을 가졌나니 저 나쁜 백정들은 악을 좋아하고 자비심이 없으리.'

코끼리 왕은 말했다. '가사를 한 모양만 봐도 자비심의 근본임을 알 수 있네. 저들은 부처님께 귀의한 자로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리라. 어머님은 의심을 품지 말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십시오. 법복을 입은 사람은 생사의 바다를 건너고자 원합니다.'

그때, 백정들은 독화살로 코끼리 왕의 심장을 쏘아 맞혔다. 어미 코끼리는 그것을 보고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목메어 게송으로 말했다. '이 법의(法衣)를 입은 사람들, 진실로 부처님께 귀의하였으랴? 그 위의는 고요하지만 독하고 악한 마음 품었구나. 저들을 빨리 짓밟아 목숨의 뿌리를 끊어 원한을 풀어 주시오. 대천의 몸을 쏘았기 때문이오.'

그때 코끼리 왕은 답했다. '차라리 이 목숨 버릴지언정 악한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리. 그들이 간사한 마음을 품었더라도 부처님 제자 모양이거니, 지혜로운 사람은 목숨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 모든 유정들을 제도하기 위해 언제나 보리 행을 익히네.'

그때 코끼리 왕은 백정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너의 이빨이 필요하다.' 코끼리 왕은 기뻐하며 곧 이빨을 뽑아 그들에게 주며 말했다. '나는 지금 흰 이빨을 너희에게 주지만, 아무런 분노나 원한, 아까워함도 없다. (이빨)을 보시한 이 복으로 장차 부처를 이루어 모든 중생의 번뇌 병 없애기를 원하노라.'

선남자야, 마땅히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과거의 코끼리 왕은 비록 축생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아뇩다라삼먁삼보리'(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를 구하기 위해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고, 가사 입은 사람을 존중했으며, 그가 원수일지라도 보복을 하지 않았다. … 그런데 미래 세상의 포악한 왕과 재관 등은 실로 어리석으면서도 총명하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 그리고 세간을 속이며 후세의 괴로운 과보를 두려워하지도 않아, 나의 법에 출가한 이로서 법의 그릇이든 아니든 그들을 괴롭히고 꾸짖고 곤장으로 때리며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끊는다. 그것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에게 큰 범죄를 짓는 것으로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송림사 주지〉

제43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마음의 힘 키우기
인연과 화합하기
달라지는 '나'
주인된 삶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기 간 : 2025년 10월 11일(토)~11월 29일(토)
총 8주 매주(토) 오후 1:30~5:30
(1주 오리엔테이션은 오후 1시~6시)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국민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문 의 : 031-470-3200/3196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